

# 낙농산업의 현재와 미래, 새로운 시작을 꿈꾼다

잠시 꿈결 같았던 시간이 지나갔다. 다시 돌아온 바쁜 일상 속에서 가끔 웃음 지을 수 있는 건, 아마도 이번 가을이 내 삶에 참 특별한 순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잠시 쉴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많은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었던 교육이었다. 내 인생의 전환점, 새로운 시작. 2015년 여성 낙농인 선진지 연수 교육을 다녀왔다. 몇 해 전 남편의 권유로 여성낙농인 목장경영 전문화교육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어린 두 아이의 엄마로 육아를 병행하며 교육을 받기 쉽지 않았다. 그렇게 몇 해가 흘러갔고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작은 아이가 여섯 살이 되었다. 시간을 내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여성 낙농인분들을 만나 뵈게 되었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목장경영에 도움이 되는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유럽연수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나의 서른 중반에 해외선진지 연수교육이 시작되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싶었다. 유럽의 낙농산업과 치즈산업은 어떤 모습일지 설레고 궁금했다.



황길연  
충남 부여 중원목장

## 인간과 동물의 공생 위해 더 노력해야

오랜 비행을 거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했다. 목장경영 전문화교육 때 감사님께서 설명해주셨던 낙농업 전문 실습센터 ptc+를 방문하게 되었다. 전문 직업교육, 전문대학 학부생 교육, 농업관련 학부과정, 교육자 훈련, 전반적 훈련 등 다양한 그룹이 있었다. ptc+에서는 특성에 맞게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깨끗하고 좋은 시설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음이 부

러웠다. 그리고 낙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 낙농업 전문 실습센터에 전세계 낙농인들이 교육받으러 오는 날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혼자 미소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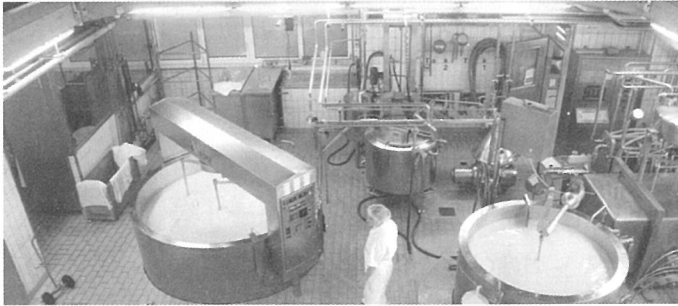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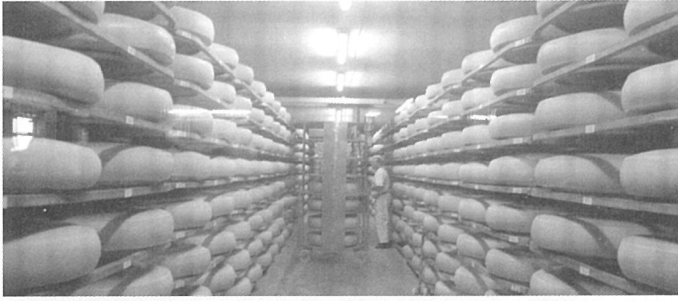
또한 유기농방식의 낙농목장을 방문하여 네덜란드의 낙농업을 살펴볼 수 있었다. 푸른 초원 위에 여유롭게 풀을 뜯어 먹는 소들이 참 편안해 보였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서로에게 도움이 되며,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깨달았다. 네덜란드 잔세스칸스의 풍차마을, 나막신 공장, 치즈마을. 이색적인 유럽의 풍경들은 참으로 여유롭고 한가로워 보였다. 추운 날씨에도 노란낙엽은 황금빛처럼 얼마나 아름다운지... 낙엽이 이렇게 아름다운 유럽의 가을을 볼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했다.

## 오래된 것들의 자연스러움과 소중함 배워

다음 방문국가는 스위스였다. 에멘탈 치즈 생산 공장을 직접 보고, 치즈를 맛볼 수 있었다. 에멘탈 치즈의 생산과정과 제조시설을 둘러보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의 치즈산업을 접하게 되었다.

나는 3년 전 충남대학교 유가공 과정을 통해 치즈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목장에서 생산한 신선한 우유로 치즈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마냥 신기했다. 우유가 덩어리가 되어 손에 닿는 느낌, 커드의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살아있는 생명처럼 느껴졌다.

그 때 아마 치즈에 반하지 않았을까? 마음이 따뜻해졌고 어쩌면 치유의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 상처가 있거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이 커드를



▲ 스위스 에멘탈 치즈 공장



▲ 독일 WeidenHof목장의 바이오가스 시설

만져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빨리 만들어지지 않고, 정성을 다해야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 우리의 삶과 닮아 있는 치즈의 공정과정이 마음에 들었다. 천천히 정성을 다하고 기다리는 것도 말이다.

체험목장을 하면서 치즈와 요거트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나에게 스위스는 정말 매력적인 곳이었다. 인터라켄으로 이동하여 열차를 타고 바라보았던 풍경들이 아직도 기억 속에서 스쳐 지나간다. 아기자기한 오래된 집들의 발코니마다 예쁜 꽃들이 가득하고 아름다웠다. 오랜 세월의 흔적만큼 매력적이고 멋스러웠다. 늘 새로운 건물과 좋은 시설만을 좋아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오래된 것들의 자연스러움과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독일로 향했다. 하이델베르크를 둘러 뤼데스하임에서 케이블카로 전망대에 올라 포도밭을 바라보았다. 날이 흐렸지만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상쾌했다. 안개에 살짝 가려진 노란 포도밭이 인상적이었다. 잠깐의 휴식을 마치고 독일의 유가공 목장을 방문하였다. 우유생산, 치즈가공, 직판장 운영 등



생산부터 판매까지 직접하고 있으며,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시설을 갖추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었다. 너무 깨끗한 착유시설에 깜짝 놀랐고, 목장에서 만들어진 부드럽고 달콤한 크바치즈가 참 맛있었다.

## 바쁜 일상을 벗어난 6박 8일, 추억으로 간직할 것

새삼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여성낙농인들과 함께 즐거운 연수교육을 마무리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

연수기간동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권영웅 지도교수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언제나 든든하게 곁에 계셔주신 이명규 여성분과위원장님, 좋은 사진 많이 찍어 주신 이혜진 기자님, 여행 기간 내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보살펴 주신 관계자분들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6박 8일간의 시간을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하려 한다.☺